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라!

사회 초년생의 애환

나는 졸업 후 '예방의학'이라는 전공과목의 특성상,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조교 겸 전공의 생활을 했다. 내가 예방의학을 택한 것은 사회과학 쪽을 선호하는 취향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과 재수 시절 나는 유난히 사회 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얻었다. 사실 자연과학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대에 진학했던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덜 좋아하는 일에는 하는 만큼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공부에 시달리느라 의대 생활에 눌러 있었는데 예방의학교수 중 한 분인 신영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는 '내가 전공할 과목이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방의학은 개인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예방의학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인류학, 영양학 등의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특히 의사의 첫째 사명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라고 할 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나의 생애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다른 임상 과목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실에 남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실 생활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많았다는 것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직장이지만 '지독한 예수쟁이'로 알려져 있는 나의 경우는 더욱 힘든 시련이 많았다.

나에 대해 소문을 들은 한 교수님은 내 방을 보시더니 '도대체 이 방은 의학도의 방이냐 신학도의 방이냐'며 핀잔을 주시기도 했다. 여기에서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경험은 인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

그리고 '학문의 길, 더욱이 의학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과 연약함과 왜곡된 마음과 깊은 죄 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다른 크리스천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술자리였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의 세계에서 술을 안 먹으면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더욱이 일제 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철저한 도제제도나 마찬가지로 의대 교실 생활의 생리는 더욱 엄격하였다.

원로 교수, 주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그리고 조교 2 명으로 총 8 명밖에 안되는 우리 교실 역시, 모든 생활이 투명한 데다 막내인 내가 모든 잔심부름은 물론 술시중까지 들어야 했다. 그 시절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세월은 갔고 결국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는 강요하는 사람도, 같이 즐기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 좋았다. 굳이 술을 마실 시간도 없어서 저절로 금하게 되었지만 '술과 믿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술을 반드시 안 먹어야 의인이고 술을 입에 대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등식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술에 취하거나 즐기는 일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병든 존재인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다만 상당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이 결국 '내가 영터리 신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다.

간증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특수한 사건을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고 역사하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증의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술을 안 먹고 끝까지 버틴, 용기 있는 크리스천만이 인정받는다면 모두가 직장을 그만 두고 신학교에 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는 타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자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도 인간의 순수한 향연에 즐거움으로 동참하시는 측면과 그 집이 마리아의 친척집이라는 삶의 관계성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술에 취하거나 즐기거나 인에 박히는 것, 즉 술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경적 기준 내에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책임이 사람을 성장 시킨다

'서복후' 시절

대학을 졸업하면서 CCC도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 순례가 시작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영락 교회를 시작으로 소망 교회, 영세 교회, 사랑의 교회, 춘천 소양 교회를 다녔다. 많은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고 신앙의 폭 또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졸업 무렵, 캠퍼스 시절에 기숙사와 사랑방을 중심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이 뿔뚱이 났다. 그것은 선배들이 가졌던 서울대 복음화의 비전을 후배들과 같이 계속 키워가고 후배들에게도 사랑방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성한 모임이 '서울대 복음화 후원회'였다.

사랑방이란 일종의 가정 기숙사인데 관악 캠퍼스 앞의 큰 집을 전세 내어 형제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모체가 되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주로 기숙사에 있었지만 방학이나 휴교 기간 동안에는 사랑방에서 생활했는데 정말 흥분된 시간들이었다.

비전과 꿈과 낭만을 나누며 밤을 새워 이야기하며 같이 자고 먹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비전의 동질화'가 이루어졌고 같은 빛깔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일단 사랑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학생들이 변화되었고, 이후 서울대 CCC의 임원들은 모두 사랑방 출신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예수님께서 제자화의 방법으로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야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전공의 시절 나는 초대 회장인 박하정 형제의 뒤를 이어 서울대 복음화 후원회(약칭 서복후)의 2대 회장에 취임했다. 본래 형제들을 많이 키워 인맥이 두터운 탓에 서복후는 자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결같이>라는 회보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기 모임이 구심점이 되어 서울대 CCC 출신들을 하나로 묶어 나갔다.

나는 이 모임에서 후배들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서울대 복음화를 지속시키는 일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했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나는 핑크빛 미래의 꿈을 제시했다.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형제들의 무서운 상승 작용을 기대하면서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직능별로 연합된 총체적 선교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했다.

즉 각 전문직의 하나 됨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며 주거 공동체, 경제 공동체 등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불신 사회에 총체적 도전을 주고 민족을 입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것이었다.

그때 형제들을 향하여 내뿜었던 메시지들은 거의가 가슴에 불을 품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 나는 '민족 복음화의 여정에서 마지막 건너야 할 홍해는 뜨거운 형제애로 뭉쳐진 생명 공동체의 출현'이라는 김준곤 목사님의 말을 좋아했다.

책임을 맡는 것처럼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서복후 회장을 맡으면서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공동체적 하나 됨을 유지하기에 힘썼다. 심지어는 군에 입대한 형제들을 만나러 강원도 변방까지 찾아다니기도 했다. 서울대학병원 시절, 중요한 수술에 보조 의사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스케줄을 취소하고 형제들의 결혼식에 쫓아다니기도 했다.

형제자매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메시지를 전했고 이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북 리뷰와 기도회를 통해서 참여한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앙적 동질성으로 하나 된 우리의 모임에 간혹 게스트로 참석하게 되는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었는가' 하며 감탄을 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만큼 축복된 모임이었다. 그 덕택에 나는 서복후 3대 회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최초의 연임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서복후는 나에게 공동체적 삶에 눈뜨는 기쁨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준 만큼 많은 좌절과 실패도 안겨다 주었다. 그토록 신앙이 좋아보이던 형제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

나는 본래 사람 욕심이 많다. 지금도 좋은 사람을 보면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절로 나올 정도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 피보다 진한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형제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신앙에서도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미어지는 마음을 감당키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 난 형제들도 많았다. 대부분 직장 초년생으로 '신앙적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새로운 영적 능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했다.

사랑의 대가가 되라!

사랑의 추억들

뜻사랑의 추억

내게 있어 첫사랑은 아내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고교 시절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 있는 뜨거운 열정은 뜻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형이 상경한 이후 나는 광주 동중에서 광주일고로 진학을 했다. 그때 '용설란 문학 동인회'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받았다. 초청장은 형이 그 모임의 회장으로 있었던 시절 우리 집을 들락거리던 형들이 보내준 것으로, 그해 봄 가톨릭 회관에서 있었던 문학의 밤에 나를 초청해 준 것이다.

형들을 만나려고 무대 뒷편으로 가다가 입구에서 그 클럽의 동인으로 있던 한 여학생이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의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덕스러움을 한꺼번에 머금은 얼굴과 조용한 눈빛은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그리던 구원의 여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스커트, 그리고 입가엔 모나리자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마침 그 다음날이 용설란 총회일이라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 모두의 환영 속에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입으로는 문학에의 열정을 내세웠어도 직접적인 동기는 그 여학생을 보기 위함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여학생은 전남여고 학생이었고 광주일고와는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을 같이 일으킨 자매 학교이기에 더욱 마음이 갔다. 그 여학생을 본 이후 나는 전남여고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맛보곤 했다.

내가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도내 백일장에서 시 부문에서 입상을 하면서부터였다. 형이 쓰는 시를 어깨 너머로 배워 나도 문학의 길을 가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문예반에 들어 작품 활동을 하며 글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로 간 것은 용설란 문학 동인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다.

용설란 수련회 때는 선배들과 밤새워 시와 소설을 논하며 인생을 노래했다. 정기모임 때는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발표하며 비평을 들었다. 광주의 변화가인 총장로의 유명 제과점에서 가졌던 시화전을 오픈 할 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내가 쓴 시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사과나무 아래>라는 시인데, 나는 대체로 농부의 아련한 꿈을 주제로 했지 우중충한 삶을 주제로 쓴 기억이 없다. 그때 썼던 시 중에 한 편도 보전된 것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 여학생과의 만남은 1년 동안 계속되었다. 안타깝게도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 거의가 전체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특히 일요일 새벽마다 사직 공원의 영랑·용아 시비(전남 출신 시인인 김영랑과 박용철의 시를 기념하기 위한 시비)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용설란이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그곳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나면 할 말이 없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였다. 막상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나면 평소에 없던 더듬거리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능이 많았던 그녀도 그 당시 나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이심전심이라고 할까? 어쨌든 가슴 가득한 열기를 표출하지 못하는 고통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다 한 번은 찬스가 왔는데 그것은 그 해 여름 가톨릭 피정 센터로 수련회를 갔을 때였다.

수련회 둘째 날 오후였다. 휴식 시간에 피정 센터 본관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그녀가 거기서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가 다정한 미소를 머금고 나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렇게 옥상을 거니는 것도 참 즐겁지요?"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멋진 찬스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문이 막혀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자 나는 황급히 옥상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녀를 피해버린 것이다.

그 후 모임 중에 그녀와의 대화도 찾아지고 같이 산책하거나 탁구를 칠 기회도 종종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게 내 마음을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다. 용설란에서 같이 활동하던 남학생들과 그녀의 집을 찾아가간 적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허탕을 쳤던 것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2 학년이 되면서 서울의대 진학을 목표로 세우고 난 다음 용설란에 나가는 횡수가 줄고 결국 공부에 짓눌려 거의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 3 학년 땀가 피정 센터에서 열린 용설란 수련회에 후배들을 격려차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은 무척 초췌해 보였다. 그 후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못하고 부산 집에 내려가 어느 세무서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그녀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이다.

풋사랑이란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랑이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지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이 풋사랑의 풋풋함을 꼭 전해주고 싶다.

이것은 비록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애정 표현을 주로 편지로 했는데 몇 번을 썼다가 지워야 겨우 한 장의 편지가 완성되었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밤을 괴로움으로 지새워야 했는지... 그러다가 성사될 때의 그 기쁨과 환희란...! 인스턴트 사랑, 후라이팬과 같이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어버리는 요즈음 신세대에게 사랑의 아름다움과 송고함을 꼭 전해주고 싶다.

사랑이란 씨를 뿌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랑이란 '저절로' 혹은 '갑자기'가 아니라 '작은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과 희생으로 오랫동안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배움의 과정이며 인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다.

짝사랑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

CCC 에 나가면서부터 나에게서 주님을 만난 기쁨 외에 또 하나의 숨겨둔 즐거움이 있었다. 그것은 김준곤 목사님의 막내딸 희수를 바라보는 환희였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김 목사님 댁에서 가든파티가 열렸던 날이었다.

우연히 들어갔던 식당에서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그 당시 그녀는 중학 1 학년생이었다.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녀를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연유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김준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한번은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나는 항상 막내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내 딸이 내 모든 고난을 대신 가져간 듯한 상징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두 살 때인가 끓는 솥에 빠져 크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드렸던 처절한 기도는 '나의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좋으니 내 딸의 목숨을 살려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내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막내딸 희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짝사랑은 8년간 지속되었다. 8년 후 그녀가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인 대학 2학년생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그만 만나자'고 제의해 왔다. 나는 그것을 100%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했고 그 강렬했던 짝사랑은 불발로 끝났다.

8년을 기다려 첫 번째 데이트를 했을 때의 감격, 그날 그녀를 여의도까지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마포대교를 건너며 찬송가를 불렀다. 그 짝사랑은 어떤 때는 강도가 강했고 어떤 때는 잊혀질만하다 계기가 생기면 다시 시작되곤 했다.

CCC 활동을 하면서 훌륭한 자매들을 많이 만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짝사랑의 시작은 언제든 가능했다. 그러나 환상은 실제보다 강했고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 그 속에 몰입하는 것은 소모이지 진정한 창조는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허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희수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했고 훌륭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둔 사모가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농익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와 결별하고 난 다음 해에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8년 동안 총각으로 묶어두신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배미경'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녀는 내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하던 병원의 간호사였다. 아내와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당시 야간 응급실에 근무하던 나는 야식을 먹기 위해 4층 식당으로 갔다. 이미 식사 중이던 2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잠깐 동안의 대화 중에 참으로 밝은 인상을 받았다. 그 간호사들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 혼자 식사를 하다 생각해보니 그 중 한 간호사의 청순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간호사를 수소문해서 소아과 병동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조용하다가도 일단 결심을 하면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인다. 물론 그것이 히트를 칠 때도 있지만 무모하게 실패로 끝나는 수도 많다.

새벽 3~4 시쯤 되었을까.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실을 찾은 나는 그녀와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했다. 나는 그녀가 3대째 전통 깊은 크리스천의 경건한 신앙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에 더욱 호감이 갔다.

사실 그녀는 착하디착한 심성에 맑고 밝은 인상을 가졌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구김살 없이 당당했다.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과 언젠가 의료 선교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체적으로 그녀가 무조건 좋았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을 기대했다. 그런 일은 풋사랑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밤에 다시 소아과 병동을 찾아 대화를 나누며 탐색전을 계속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기로 작정했다.

야간 근무조의 간호사들이 퇴근할 무렵, 새벽녘 병원 현관에 있다가 나오는 그녀에게 다짜고짜로 데이트 날짜와 장소를 통보하고는 그녀의 동의를 받아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한식집에서 '한 끼 식사' 정도로 시작된 데이트는 점점 불이 붙었다. 그래서 공휴일에 나들이 데이트를 약속했는데 장소는 국립묘지였다. 그날이 마침 삼일절이었기에 정식 데이트를 하는 것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순국선열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 됨을 열망했었는데 마치 대통령에 출마한 것 같은 준엄한 마음이었다.

6 개월간의 뜨거운 열애 끝에 우리는 그해 9 월 1 일 결혼했다. 당시 내가 섬기던 소망 교회에서 객석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는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왔다. 서울의 대홍수였던 망원동 사태가 나던 날이었고,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지원하여 북한 쌀을 먹어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홍수였다.

비를 축복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혼식은 온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속에 진행된 것이다.

아내와 나는 결혼 초반부터 많은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특히 출신 배경이 선교 단체와 교회라는 차이에다가 내가 서복후를 이끌어갈 무렵이라 아내로서는 말하지 못할 고충이 많았던 것 같다. 시도 때도 없이 3~4 명이 집에 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때는 7~8 명이 집에 와서 자고 먹기를 몇 끼씩 같이 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최고의 손님 접대를 요구했고 '불고기'라도 있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나 전공의 경조교로 근무하던 시절, 쥐꼬리만한 봉급에 감당키 어려운 재정적 출혈도 출혈이려니와 밤낮 없는 손님 접대에 시달리는 아내의 괴로움은 매우 컸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인간 이상의 헌신'을 요구했고 그것에 말없이 순종하는 아내에게 별로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이 당연하게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아내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

아내와 나의 공통점은 세속적인 것에 욕심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는 물론 자녀 교육에도 욕심이 없다. 다만 내가 미래지향적 성향이 강한 반면 아내는 현실 지향적 성향이 우세한 편이다. 그리고 내가 융통성이 많고 지성적인 반면 아내는 일관성이 강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상승 작용을 할 때가 더 많았다.

성격 차이도 역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가 싶다. 우리 가정이 무소유의 삶을 원칙으로 해서 집 없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내였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동시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동의한 것도 아내였다.

아내가 나의 첫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라!

조교 시절의 추억

연건동 시대의 명강의

내가 예과에서 본과로 진학하면서 옮긴 연건 캠퍼스 시절부터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9 년 동안 나는 '연건동 시대'라고 부른다. 대학로가 막 생겼고 동숭동 샘터사 부근에 '난다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전문점이 탄생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나는 연건 캠퍼스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명상에 잠긴다. 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했던 시절,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시절,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 특히 나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연건 캠퍼스와 대학로로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쉬울 때면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 흔한 맥주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하이델베르크'라는 맥주 집은 분위기가 좋아 가끔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다. 친구를 만날 때는 낙산가든 지하의 '라 까브'라는 카페를 이용했다. 문리대 자리에 생긴 공원은 새로운 문화 예술의 본거지가 되었고, 수많은 신식 카페들이 생겨났지만 나는 문리대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선배들이 이용했던 '학림다방'이나 '진아춘(중국집)'에 더 많은 애착을 갖는다.

나는 가끔 연세대의 청송대를 찾아 거닐면서 '적어도 대학의 역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며 부러워하곤 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보았던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나는 영국의 저력을 확인하며 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었다. 서울대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 나는 전통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관악 캠퍼스에 있는 규장각이 그렇고 연건 캠퍼스에 있는 함춘원이 그렇다. 연세대 의대와 집요하게 벌였던 광혜원의 뿌리 논쟁도 사실은 역사가 짧다는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전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학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학은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되 그 이념과 전통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담을 수 있는 지적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진리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는 대학다운 대학이 하나도 없다. 기독교 대학도 이미 대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 대학에서 진리니 인격이니 하는 용어 자체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처럼 지식을 파는 비즈니스의 개념이 농후한 대학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응당 거쳐야 하는 한 과정으로서의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은 조교 1년차일 때였다. 의정부에 있는 한 보건 전문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일찍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강의를 할수록 개념 전달의 비결을 깨달아갔다.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고 인격과 더불어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바른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분석의 틀로 각각의 영역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대상이 의학이든 문학이든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관계없이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배움의 보람'과 '가르치는 기쁨'에 눈뜨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꼈던 것은 조교 시절 한 학기 동안 서울대 간호학과 강의를 맡았을 때였다. 사실 간호학과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조금만 유머를 섞어도 터져 나오는 웃음꽃에서 젊음의 탄력을 느꼈다. 공부에 찌들려 있는 의학과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와는 너무도 판이한 분위기였다. 듣는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명강의라도 듣는 이와 일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때 깨달은 것은 '내가 그 강의를 들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내 자신도 학문의 열정 속에 빠져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몰입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설교하는 사람이 '스스로 감동되지 못한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명강의에 관한 이런 기억이 있다. 내가 대학원 강의를 들을 때의 일이다. 의료 제도론 시간이었는데 '캐나다의 의료 제도'에 대해 내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당시 담당 교수님이셨던 문옥륜 교수님이 '정말 명강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이후 문 교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명교수'가 될 소질이 있다고 격려를 해 주셨다.

나는 그 이후 정말 강의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것이 말씀의 은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내게 '강의하는 달란트' '개념 전달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위력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의 내면에 심어 놓으신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와 동역하는 형제자매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깨끗한 성품을 가진 나다나엘을 보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당시 일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보시고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며 대사도의 가능성을 미리 이끌어내셨다.

영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라!

사감 시절과 아가페 운동

1987년 2월, 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한림의대 교수로 발령이 났다. 한림의대에서는 조교 시절에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서울의대에서 1년 동안 한림의대로 파견 근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숙사 사감을 겸하면서 본과 2학년 학생들에게 예방의학과 실습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 학교는 1회 입학생을 맞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유난히 가깝게 지냈다. 특히 의학과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4년 동안을 같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강했다. 그리고 1회라는 특성 때문에 자부심도 강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책임감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1학기 동안 신바람 나게 강의를 하고 드디어 마지막 예방의학 강의 시간이었다. 나는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나의 대학 시절 중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은 방학 시절 무의촌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하던 일이다. 내가 활동하는 '아가페 의료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강원도 무의촌에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은 연락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당시 본과 2학년 38명 중 22명이 신청을 했다. 당일에는 13명이 참석을 하였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되었다.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의 하장 초등학교. 여름이지만 고지대라 낮에는 그런대로 견딜 만했고 밤에는 약간 쌀쌀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서울 CCC 아가페 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를 빌려 낮에는 의료 봉사를 하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가졌다.

한림의대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의외로 잘 적응했다. 그러나 처음 대해 보는 영적 분위기에는 적응이 어려웠던지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 같이 참석한 한림대 팀 13명 중 대부분이 불신자이거나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니고데모 반에 소속시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했다.

그들을 담당했던 간사님은 가끔 나에게 와서 '아무리 도전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서 나도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며 은근히 변화를 기대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강변에서 열린 캠프파이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달빛과 별빛이 백여 개의 눈빛과 마주치는 백사장, 그 가운데 은혜의 불길은 젊음의 한복판을 갈랐다. 이윽고 찬양이 끝나고 모든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다. 그 중에 한 한림의대생이 일어나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다.

"저를 이곳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내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특히 설거지를 할 때 서로가 굿은일을 먼저 하려는 성김의 자세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분위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과는 삶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런 간증이 끝나자마자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자기 차례가 되어 일어난 한림의대생들마다 똑같은 간증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 처음부터 가졌던 치밀한 전도 전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첫 강의부터 나는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수업 때 그들을 초청했고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철저히 준비된 '은혜의 덮'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전도는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 뒤로 '믿음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은 최대의 변화를 일으키며 겸손은 최대의 은혜를 보존한다.'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개학을 하자 나는 이들을 내 연구실로 불러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이 사건은 의대생들에게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지내던 이들이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며 '확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냥 교회만 나가던 아이들도 우리 모임에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는 삶을 나누는데 전력했고 연휴 기간 동안 흥천군 내면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 농장으로 수련회를 가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한림의대 아가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는 든든한 밑 걸음이 되었다.

결국 그로부터 2년 후에 나는 한림의대의 정식 교수로 발령받아 아가페의 지도 교수가 되는 감격 또한 맛보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크리스천의 변화된 삶이 주는 영적 영향력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의 끈을 두텁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서두르지 말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Slow & Steady) 하다 보면 결정적인 찬스가 오게 마련이다.

조교 생활과 서울대병원에서의 전공의 생활을 마친 후 나는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한림의대에 정식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미 조교 시절 1년 동안 그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지라 학생들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순탄했다. 당시 최고 학년인 1회 학생들에게 아가페를 통해 이미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더욱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아가페의 지도 교수를 맡아서 형제자매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많을 때는 30~40명, 보통 때는 20~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했다. 그 해 5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진부령에 있는 알프스 리조트에서 아가페 수양회를 갖기도 했다.

나는 푸르름이 온통 천지를 뒤덮은 진부령 홀리의 아름다움을 학생들과 같이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다. 터질 듯한 젊음의 열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뒤섞이면서 학생들은 감격을 누리고 있었다.

이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 때문에 나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적어도 '황성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데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본다.

아가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바나바 선교회와 연합으로 갔던 보길도 사역이었다. 당시 의대 교수의 신분으로 신학을 공부하던 나는 낙도에 교회를 개척하는 바나바 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제 1회 한림의대 아가페 의료 봉사의 대상지를 무교회 지역으로 결정했다. 한려수도에 있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는 윤선도가 귀양을 갔던 섬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몇 군데 교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 중에 선창리라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곳을 공략하기로 했다. 춘천에서 보길도로 가는 길은 꼬박 1박 2일이 걸렸다. 오후에 출발한 버스가 해남의 땅 끝 마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고 버스를 실은 배는 완화도에 내려 다시 배를 갈아타고 마침내 보길도에 상륙했다.

이 교회 개척팀은 20 여 명의 아가페 형제자매들과 바나바의 20 여 명의 식구까지 합해 50 명에 가까운 대가족이었다. 우리는 선창리 초등학교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여장을 풀었다.

보길도는 동백섬으로 불리 울 정도로 동백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남도의 아름다움이 흠뻑 배어있는 한려수도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산 중턱에 위치한 선창리 초등학교 교정에서 내려다보았던 아침 해돋이와 저녁노을을 잊을 수가 없다. 곱고 아름다운 섬들이 꼬리를 이어 연결되는 배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 선창리. 이곳에 대한 당시의 전도 전략은 간단했다. 낮에는 의료 봉사 와 노력 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이었다.

드디어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주일, 예닐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막 시작된 개척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지체부자유한 사람, 병들고 약한 사람들로 할머니들이 많았다. 그 할머니들 중 세 분은 영양제 주사를 놓아드렸던 분들로 우리 의료팀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경험이었지만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개척 선교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누가복음 4 장 18~19 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실제에 대해 체험적 접근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야외 수업이었다. 의학과 학생들의 일과란 하루 종일 껍 짜여진 강의와 실습으로 고등학교 3 학년 시절을 방불케 한다. 게다가 낙제와 제적이 많아 1 회의 경우도 신입생 100 명 가운데 본과 2 학년까지 올라온 사람이 38 명에 불과했으니 나머지는 모두 낙제를 한두 번씩은 한 셈이다.

이러한 치열한 의학 공부의 싸움터에서, 정서적으로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 하루를 정해 예방의학 강의 4 시간과 실습 4 시간을 잡아놓고 이 시간에 환경 의학 견학을 핑계로 등산을 갔다. 처음에는 서울 도봉산으로 나중에는 춘성의 팔봉산으로 가서 하루를 마음껏 즐기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윗분들이나 학교 당국에는 비밀로 하고, 내가 100% 책임을 지고 재량권을 행사했다.

그 행사는 비록 세 번에 그치고 말았지만 공부 일변도의 의학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길러주려는 시도로서 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경적 지성을 회복하라!

라브리 운동의 태동

1987년 겨울, 나는 스위스 라브리에 편지를 보냈다. 수신자는 프란시스슈퍼 박사의 말사위인 존으로 나는 그에게 다짜고짜로 '한국에 라브리를 설립하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이미 한국에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들을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다. 얼마 전 아내가 유럽에 갈 기회가 있어 몇 군데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내는 영국의 LBC, ANCC, WEC 그리고 네델란드의 YMAM, 독일의 UBF, 스위스의 L'Abri 등을 방문했는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많은 영적 도전과 미래에 비전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일찍부터 <라브리(에디스 슈퍼 지음)>라는 책을 통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한 매력에다 서복후를 통해 가졌던 공동체 운동에 대한 열정이 겹쳐 라브리를 사모하게 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일단 정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내 스타일이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의 흐름을 지켜보면 일의 결과까지 대충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나는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눈빛이 빛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고전하다가도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역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는 성경적 원리에 부합되는가를 살핀 후에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현실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어떻게든 일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초지일관하되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라브리 운동에 몸을 담게 된 나는 시간이 갈수록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라브리 수양회는 1988년 겨울에, 스위스 라브리의 엘리스 포터 간사를 초청해서 열게 되었다. 그때 합숙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은 이십여 명에 불과했지만 그의 강의는 우리 모두를 압도했다. 내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강의는 수술용 칼과도 같이 예리하게 나의 영적 폐부를 찌르며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내 기존의 신앙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즐겨 쓰는 '성경적 지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바른 영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경적 세계관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

크리스천의 삶은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비 진리의 싸움이며 이는 영적 싸움이자 사상의 전쟁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메시지란 모이는 청중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메시지를 통한 인격적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

모임이 작을수록 나는 신바람이 난다. 왜냐하면 작을수록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과 현대 사회는 큰 것, 많은 것에 약하다. 개별적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대체로 권력 앞에서는 약하다. 거대한 경제력 집중인 재벌이 젊은이의 우상이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교회에까지 외형주의와 물량주의 등의 세속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인들 역시 대중이라는 말의 마력 앞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 진리를 결정하는 일 또한 허다하다. 건전한 소수가 옳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이 오히려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나는 슈마허 박사의 저서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읽고 경제 규모도 반드시 큰 것만이 효율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무릎을 친 일이 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집중적으로 키우셨고, 그 중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자신의 전체를 쏟아 부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이 의외로 단순했음에 놀랄 때가 있다. 나는 가끔 몇 사람을 놓고도 뜨겁게 설교나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또 다른 엘리스 포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선명회의 창시자인 스탠리 무니햄이 들었던 세 가지 깃발을 깊이 인식하곤 한다. 그것은 '한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치' '한 인격의 무한한 강화력'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의 확실성'이었다.

한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가끔 한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다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일'임을 깨닫고 다시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환자가 암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하나의 우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만큼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 한 의사가 일생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들에게 어떤 강화력을 줄 수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나는 영향력 있는 위치일수록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차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본래 라브리는 미국 장로교에서 스위스로 파송한 선교사 프랜시스웨퍼 박사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스위스에서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선교사를 사임한 그들은 유명한 스키 리조트 부근의 산장을 빌려 젊은이를 위한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 라브리를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나 한국의 예수원처럼 단순한 하나의 공동체 운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

라브리라는 이름은 '피난처' '은신처'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드러내는 열정적인 실험실이자 진리와 비 진리의 치열한 싸움터이다. 그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문제를 성경의 진리로 해석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훈련장이자 선교지가 바로 라브리이다.

선교의 무한한 접촉점을 가진 곳, 성경적 지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곳. 현대 미술로 고민하는 미술 학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변화되는 곳, '진리의 절대성' 문제로 고민하던 철학도가 6 개월 동안 그곳에서의 토론과 삶을 통해 자신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확인하는 곳, 동성연애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과 성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라브리 공동체이다.

1988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렸던 라브리 수양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뉴 에이지'였다. 그 다음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일 만큼 라브리는 세속적 사상의 유행에 민감하며 우리가 헤엄치는 문화라는 바다를 철저하게 감시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가에 대한 '위험성'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천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경종을 울린다.

라브리의 교육은 그러한 사상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함으로 젊은이의 영적 갈증을 해결시켜 준다. 1990년 이 땅이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달아올랐을 때 캠퍼스는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캠퍼스는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안타까움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대학생들에게 성경은 진리이며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캠퍼스에 뛰어 들어 그들을 진리로 설득할 수 없는가'였다.

그런데 그때 라브리 수양회의 강사로 왔던 레놀드 맥콜리(쉐퍼 박사의 사위)와 빙 리트케르크(라브리 국제 총재)는 과감하게 캠퍼스로 나갔다. 그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돌면서 이데올로기와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와 하나님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의 다원적인 가치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캠퍼스의 한 복판에서 성경의 진리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외쳤던 표어는 <진리로 진리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라브리의 간사들은 그러한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 준 멋진 해결사들이었다.

물론 라브리는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라브리는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수도권식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회복'을 중시하는 공동체이다. 특히 쉐퍼 박사의 부인인 에디스 쉐퍼는 성경적 가정 사역의 원조이며 그의 딸인 수잔 쉐퍼 맥콜리는 자녀 교육의 대가이다.

그들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한번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수도권식 공동체 생활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스 포터와 의논했더니 강력히 반대하였다.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깨어지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공동체적 삶은 가정이 회복되는 의미에서 영위되어야 가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교회 사역이나 공동체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한 크리스천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소명입니다. 사역을 위해 소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이후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지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라브리는 조지 윌러 방식의 믿음 사역(Faith Mission) 원칙에 의해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필요를 아뢰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사는 공동체이지만 가정의 개별성과 사유 재산은 인정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라브리는 헌금하겠다는 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헌금 구좌를 알려주는 일이 없다. 물론 이러한 방법만이 성경적인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측면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예루살렘 입성 때는 나귀를 당당하게 차압해 가신 기록이 있다. 사실 요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당당하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헌금 방법은 사역에 따라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개성만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하나의 방법이나 형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뒤로 7 년의 기도 끝에 성인경 목사님 부부에 의해 '한국 라브리'는 탄생되었다. 세계에서 7 번째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라브리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현재 나는 한국 라브리의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라브리에 보낸 당돌한 편지가 계기가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탄생한 라브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주역이 아닌 돕는 이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조역으로서의 은근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꼭 그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설교를 할 때 가끔 '마취과 의사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수술이 잘 되고 나면 모든 영광은 외과 의사에게 돌아간다. 가족들도 모두가 외과 의사에게 찾아와 고마워한다. 그러나 아무도 찾는 이 없지만 수술실 한쪽 구석에서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마취과 의사이다. 그가 없이는 수술이 성공할 수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한다.

내가 라브리 운동을 하면서 얻게 된 최고의 소득은 성경적 지성의 회복에 있었다. 성경적 세계관과 진리에 입각한 패러다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지적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고 내가 '호도애 아카데미' 사역을 하는 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집회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바른 영성'은 사실 라브리의 핵심 강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서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바른 영성'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적 운동에 대해서는 '바른 영성'에 입각해서 그 진리성을 분별한다.

라브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